

사상 최대 수출에 80개월째 경상흑자 '쾌거'

반도체·유가·영업일수 증가 영향 상품수출 역대 최대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 40.4억달러 빠져 5년여래 최대

지난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80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추석 연휴 이후 늘어난 조업일수 덕분에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91억9000만달러로 사상 최장기간인 지난 2012년 3월 이후 80개월째 흑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10월(57억2000만달러)에 비해 흑자 폭이 확대

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이 이끌었다. 수출은 572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28.8%)도 지난 2011년 7월(29.7%) 이후 7년3개월만에 최대폭을 보였다. 이에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동월(86억달러)보다 확대된 110억달러를 달성했다.

노충식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수출이 호조를 이

뤘고, 반도체 수출도 금액 자체가 높게 나왔다"며 "9월 추석 연휴 이후 영업일수가 5일 늘어나 수출 호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입도 크게 늘었다. 마찬가지로 영업일수가 늘어난데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진 여파로 수입이 지난해 같은달보다 29% 뛰여 462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2월(33.5%) 이후 80개월만에 최대폭 상승이다.

여행수지는 9억50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달(16억7000만달러 적자)보다 큰 폭 축소됐다. 중국인과 일본인 입국자수가 늘어나고, 역대 최대

수준을 지속하던 출국자수 증가세도 기저효과로 다소 둔화된 영향이다. 적자 규모는 지난 2016년11월(7억5000만달러 적자) 이후 1년 11개월만에 최저치였다.

한은은 앞으로도 중국인·일본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더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서비스수지 적자도 개선세를 보였다. 서비스수지는 지난해 같은달 35억3000만달러 적자에서 22억2000만달러 적자로 줄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이자지급 증가 등의 영향에 전년동월(11억7000만달러)보다 축소된 9억6000

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전소득 수지는 5억4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한편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40억8000만달러 줄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주식시장 약세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특히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40억4000만달러 빠져나가며 지난 2013년 6월(51억7000만달러 감소) 이후 5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4000만달러 줄어 전월(18억달러 감소)보다는 감소폭이 축소됐다.

/김영태 기자

전북개발공사, 사랑 전하는 김장 담그기 봉사 활동 펼쳐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6일 동절기를 맞아 도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김장과 이불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

전북개발공사는 12월 6일 공사 사옥 앞 광장에서 임직원과 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펼치고 이날 정성껏 맛갈스럽게 담긴 김치 3,300kg를 임대주택 주민들과 전주지역 아동센터 등 희망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 330여세대에 전달했다.

또한, 전북개발공사는 11월 23일 도내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70세대에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이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전북개발공사는 2011년부터 전북도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겨울철 지역 이웃들에게 난방용품(연탄 등)을 전달했으며 그간 지원된 연탄은 총 48,000여장에 이르고 있다.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이번에 전달된 김장과 이불이 우리고장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임직원들이 모금한 '불우이웃 돕기 성금'과 사무실에 있는 동전을 모은 '희망저금통'을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이 6일 농협 중앙본부에서 열린 '연합마케팅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최우수사무소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

산지유통·통합마케팅 메카 증명하다

전북농협, 최우수사무소 선정·농산물 브랜드 대상 휩쓸어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6일 농협 중앙본부에서 열린 '연합마케팅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최우수사무소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김제지평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최우수상, 전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고, 남원시가 지자체 협력사업 대상, 익산시의 탐마투가 농산물 브랜드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평가회에서 관내 시군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전북농협이 대부분의 상을 휩쓴 것은 명실공히 전북이 통합마케팅의 메카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고, 드디어 산지유통의 리더로서 확실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전북농협은 올해 '소비가 뽑은 브랜드 대상', 상반기 '산지유통 대상'을 수상하는 등 최근 몇 년동안 각종 수상경력으로 전국의 산지유통을 주도했으며 남원시와 김제지평선 조합법인이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산지유통종합평가 A등급을 받아 도내 13개 시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최고의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다.

더불어, 남원조공의 박해근 대표는 올해 대통령상을 수상, 전북의 위상을 높이는 등 조공법인이 통합마케팅 조직의 정당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북농협의 통합마케팅 실적은 '12년도에 1천억원, '14년도에 2천억원, '16년도에 3천억원을 넘어섰고 올해 3천5백억원 이상을 달성하여 전국 최고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전북농협은 전북도와 협력하여 전북 농업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농정정책인 산지유통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조기에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한편 '연합마케팅사업 종합평가회'는 농협중앙회가 한 해 동안의 통합마케팅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산지 조직을 평가하는 농산물 유통사업의 최고 권위 행사이다.

/김영태 기자

현장의 소리 귀 기울여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 전주에코시티지점 방문 전북지역 현장 경영 나서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이 6일 농협금융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일선 현장과의 소통 강화와 현장경영을 위해 전북을 방문했다.

김 회장은 농협은행 전주에코시티지점을 방문, 간단한 업무현황과 함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농협은행·NH투자증권·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등 전북지역 소재 계열사 직원 20여명을 대상, 오찬 간담회를 하고 현장의 목소리 듣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 회장은 "최근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올해 목표손익을 초과 달성하는 등 전 임직원의 노력으로 우리 농협금융이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이는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재무를 다해준 직원들의 공이 크다"며, "조직의 경쟁력은 물론 직원 개개인의 역량과 경쟁력을 키워 달라 부탁, 영업점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은 올해 4월 농협금융지주 회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현장경영을 강조하며, 전국의 영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직원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해 현장의 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이 6일 농협금융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일선 현장과의 소통 강화와 현장경영을 위해 전북을 방문했다.

/김영태 기자

휴비스 메타아라미드 '메타원' 차세대 일류상품 수상

휴비스 메타아라미드 '메타원'이 최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18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인증수여식'에서 차세대일류상품을 수상했다.

이에, 휴비스는 세계일류상품 5개, 차세대일류상품 5개로 총 10개의 일류상품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은 매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발굴, 육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에서 선정하고 있다.

해당 상품의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이며 세계시장 점유율 5위 내에 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상품에 세계일류상품을 수여하고 향후 5년 이내 세계일류상품으로 도약 가능한 제품에 차세대일류상품 인증을 수여한다.

이번에 수상한 메타아라미드 '메타원'은 휴비스가 2009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슈퍼섬유로 내연성과 내열성이 우수하여 소방복, 안전복, 산업용

필터 등에 사용되는 소재이다.

2015년 특수소방복에 적용하여 9년 만에 우리 소방관들이 우리 소재로 만든 특수 방화복을 입게 되었다.

휴비스 메타원으로 만든 특수방화복아라미드는 섬유 400°C 고온에서도 불에 타지 않는 내연성이 우수한 메타아라미드와 강철보다 5배 이상 강도가 뛰어난 파라아라미드로 나뉘는데 이번 수상은 아라미드 섬유에서 유일하게 수여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성운 휴비스R&D센터소장은 "향후 세계일류 상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 커리어 캠프 참가자 모집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진로와 취업으로 고민하는 도내 대학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7회 2018 JB 커리어 캠프' 참가자를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JB 커리어 캠프는 재단에서 주최하는 도내 대학생 대상 취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매년 2회 개최하고 있으며 취업분야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 역량, 리더십을 개발, 영향력 있는 인재가 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JB 커리어 캠프는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북은행 본점 19층 연수원에서 실시, 취업로드맵과 비전설정, 프레지더 강점진단, 셀프 브랜딩 기법과 청년사업가 육성결집 박애나 대표, 현 MBC 이충훈 아나운서 말하기 특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흥미롭게 진행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